

월간

예향

6월호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6월엔 캠핑 떠나 볼까

광주일보 문화전문매거진 월간 '예향' 6월(통권 224)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6월호에는 특집 '클래식을 좋아하세요?'와 기획 '6월엔 캠핑 떠나 볼까' 등 심층기사와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최근 막을 내린 TV드라마 '밀회'는 클래식 음악 신드롬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예향'은 빛고을은 물론 국내 클래식 대중화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모태로 크로스 오버, 퓨전까지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주는 클래식의 진화를 비롯 영화, CF 등 다양한 장르에 녹아 있는 음악과 문화를 조명했다.

주5일제가 정착되고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캠핑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생활문화가 되었다. 최근에는 힐링, 체험 등 이색적인 주제가 인기를 끌면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캠핑을 즐기려는 캠핑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초여름의 길목,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캠핑의 모든 것을 담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고대사의 보고이자 21세기 우주시대를 견인할 유자갈 고향 고흥을 찾았다. 예술로 꽃피운 소록도의 아픈 역사와 '8品9味'를 담은 고흥의 땅과 바다를 집중 조명했다.

예향초대석에서는 옥장(玉匠) 장주원 선생을 만나 전라도 특색으로 전통예술을 지켜내는 그의 열정과 '홍고집' 예술가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마주앉은 책과 삶'에서는 율해로 시작(詩作) 41년째를 맞는 신춘문에 3관왕 출신 정호승 시인의 삶과 문학,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달의 아티스트에서는 광주시립국극단을 이끌고 있는 소리꾼 윤진철의 국악 인생과 소리에 영향을 준 스승 이야기, 대중화에 성공한 시립국극단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들었다.

6월은 2014브라질월드컵이 열리는 달이기도 하다. 스포츠 평론가 정윤수 씨가 보내는 '치유의 월드컵, 공간의 연대'는 축구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남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시재생 배우러 갑시다”

광주건축단체연합, 13일까지 참가자 모집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오는 13일까지 '2014년 제1회 광주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 장소는 서울이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조선시대 조성된 상류층 주거지 '북촌 한옥마을', 서울 대표 문화거리 '인사동 삼지길'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투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8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중식·석식 포함)는 학생 2만원, 일반 2만5000원이다. 문의 062-521-0025~6.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책 문화 공간 '봄'



개관 1년을 막 넘긴 광주시 남구 노대동 '책 문화 공간 봄 : '은 마을의 서재이자, 책 놀이터이자, 밤의 도서관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가 흐르는 공간

4 광주 노대동 '책문화 공간 봄 : '

'좋은 책을 나누는 마을의 서재, 마실 나온 가족들의 책 놀이터, 마음이 쉬어가는 밤의 도서관.'

지난해 4월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문을 연 마을도서관 '책 문화 공간 봄 : '이 꿈꾸는 풍경이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때 뿌려졌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노대동 호수공원 인근에 자리한 '봄 : '에 가려면 일단 카페 '디 마레'에 먼저 들러야 한다.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봄 : '을 만난다. '디 마레'의 주인장이 기부한 공간이다. 도서관이 카페와 연결된 덕에 이용객들은 행복하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날은 카페가 쉬는 설날과 추석 두차례 뿐. 문을 여는 시간도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주 길다.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내 집' 서재같다.

재미있는 게, '봄 : ' 뒷쪽 입구는 사우나와 연결돼 있다. 목욕 가능하고 사우나 왔던 이들이 호기심에 들어왔다 '발견'하고, "머리털 나고 책 한 권 안 읽었다"는 어른도 속스러운듯 시집을 떠들어본다.

'봄 : '은 자치단체 지원을 받지 않는다. 광주 풍암동 아이숲 도서관을 5년간 맡았던 정봉남 관장과 7명의 운영위원들이 비용을 추렴하고, 자원봉사자인 북큐레이터(북큐), 북어드바이저가 함께 꾸려나간다. '디 마레'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장을 받으면 판매액은 '봄 : ' 운영비로 쓰인다.

무엇보다, 책들이 탐난다. 지금까지 많은 도서관과 북카페 등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딱 읽고 싶은 책", "갖고 싶은 책"이 가득한 공간은 처음이었다.

정 관장은 오래 전부터 월급의 절반으로 책을 사곤했다. 도

자발적 기부로 나누는 '책꽃이 한칸'

'책과 콩나물' 등 독서 모임 운영

한점 갤러리, 작가와의 대화 진행

명절 제외 매일 밤 12시까지 오픈



서간에 꽂혀 있는 3500여권 중 정 관장의 책이 80% 정도다. 집에서 읽던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게 정 관장의 설명이다. 도서관 이름 '봄 : '은 책을 보고, 삶을 보고, 찬찬히 들여다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봄이라는 계절이 갖고 있는 출발, 산뜻함의 의미도 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도서관 전문가가 꾸린 공간답게 일차다. '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함께 나누는 책꽃이다. 주민들이 책꽃이 한칸(약 20권 정도)을 자신의 서재처럼 이용한다. 달빛정원, 바람개비 등 20여명이 자신의 서재를 꾸렸다. 한 사람의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 그대로 보인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소녀의 책꽂이에는 온갖 고양이 책이 꽂혀있다. 몇달전 다녀간 김동호 문화옹성위원장도 책을 보내 책꽃이를 마련했다.

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인권도서 차이다. 우리 삶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평화그림책', '내 이름은 율비' 등을 함께 돌려본다. 또 예술특화 도서관 특성을 살려 관련 책들도 찾게 배치해 두었다.

독서동아리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자원봉사자 모임 '봄봄', 인근 도서관 봉사자 주부들 모임 '책과 콩나물', 20대 청춘들 모임 '가을 나래', 영유아 엄마들 모임 '하늘꿈바라기' 등 4개가 활동중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모임에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한점갤러리' 코너도 있다. 서양화가 정선희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잘 살펴보면 정윤하, 주홍, 고근호씨의 작품도 숨어 있다.

'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하고 6월 셋째주 금요일부터는 영화 읽기 모임도 시작된다.

이웃들을 위한 '책 하나 꿈 더하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촌에 있는 록빠 어린이 도서관과 중국 연변지주 훈춘소학교 도서관 책보내기 운동을 진행중이다.

"누군가는 자연스레 책을 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책을 읽고, 도서관을 찾는 일이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같아요. 마음을 여시고 아무 때나 오셔서 내집처럼 편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해요."

정봉남 관장은 "도서관이 자연스런 힐링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booksbom. 문의 062-681-5432, 010-2609-09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90

이태리 가구 전문점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